

勞 動 經 濟 論 集
第 43 卷 第 4 號, 2020.12. pp.35~86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 인 경** · 이 정 민***

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에 고용확률이 약 12%p 떨어지며 결혼 6년 차에 이르면 미혼시절보다 약 46%p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다. 고용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주제어: 결혼, 출산, 여성, 노동시장 성과, 동태적 효과, 생활만족도, 사건사·이중차분법

논문 접수일: 2020년 7월 23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19일, 논문 게재확정일: 11월 9일

* 본 논문은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 제출된 유인경의 석사학위 논문 “결혼과 첫 아이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두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3A206649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inkyung0718@snu.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jmlee90@snu.ac.kr)

I. 서론

장기간 저출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67년에는 2017년 규모의 절반 이하인 4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a).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나타나기까지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에 따른 중단기적 정책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닌 기존의 노동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인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고 양질의 외국인 노동력을 추가로 유입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김주영·우석진, 2010; 이혜원, 2014; 김대일, 2018; 이철희·김규연, 201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할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부터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아졌으며 2018년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7.9%p 높다(통계청, 2019b). 교육수준뿐 아니라 성과에서도 평균적으로 남녀의 격차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8년 PISA 성적을 보면 수학과 과학에서 남녀 격차가 사라졌고 읽기 영역에서는 여성의 성적이 더 높았다. 둘째, 산업구조가 과거 남성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던 제조업 중심에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해 왔다(Olivetti and Petrongolo, 2014; 강종구, 2017).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9.4%로 OECD 평균인 64.6%보다 5.2%p 낮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철희·김규연, 2019).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왜 낮은 것일까? <표 1>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미국, 일본, 중국 및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경우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교 대상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연령별 참가율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 30-40대에 정점을 가지는 역 U자형 모양을 보인다. 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30대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는데, 20대 후반과 비교할 때 일본의 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3%p

낮고 한국은 그 차이가 14.8%p로 더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초혼과 초산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과 출산, 육아의 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이중차분-사건사(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이하 DID-Event)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DID-Event 방법은 사건사 방법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두 집단의 추세를 구하고 사건 이후 나타나는 두 집단의 추세 차이를 해당 사건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Kleven et al.(2019)는 DID-Event 방법을 이용하여 출산 이전 노동시장 성과 추세가 유사한 두 집단의 사건 이후의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출산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even et al.(2019)의 방법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면서, Fadlon and Nielsen(2019)의 방법을 차용하는 등 4개의 서로 다른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 성과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여 선행 연구를 발전시키려 하였다.

결혼과 출산은 모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각각의 독립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결혼의 효과를 추정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무자녀 기혼여성과 무자녀 미혼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최소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세대(68-87년생 여성)에서 대부분 혼인 이후 출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이 낮고 무자녀 상태의 기간도 짧아서 결혼의 효과와 출산의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¹⁾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에 의하면 기혼여성 중 만 45세까지 출산하지 않은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약 2.7%이며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여 구축한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6.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비교집단으로 삼아 분석하기에는 선택편의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표본의 크기도 작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효과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결혼의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의 총체적 효과(total effect)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노동패

1) 결혼과 출산의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향후 연구주제이다. 특히 비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혼인가구 중에서도 무자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결혼과 출산의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정책적으로도 각각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널(KLI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결혼 이후 여성의 고용률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결혼 6년 차의 고용률은 결혼 전보다 약 46%p 낮아졌다. 또 고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졌다.²⁾ 둘째,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중대한 생애사적 사건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결혼 이후에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가장 크고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결혼 6년 차까지도 긍정적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한편 생활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부정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제III장에서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 방법인 사건사-이중차분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표본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설명한다. 제V장에서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강건성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제 중 하나로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Mincer, 1962; Heckman and Macurdy, 1980; Rosenzweig and Wolpin, 1980; Nakamura and Nakamura, 1992).³⁾ 결혼

2)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만을 표본으로 사용할 경우 강한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결혼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 참여의 내생성을 해결한 후 근로소득을 비교하는 방법론이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효과를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비취업 여성의 소득을 0으로 부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Kleven et al.(2019)에서도 출산의 효과를 추정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의 소득을 0으로 부과하고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3) 선진국의 경우에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주목을 받았다(Waldfoegel, 1998; Budig and England, 2001; Blau and Kahn, 2007; Glauber, 2007).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의

과 출산 여부와 타이밍(timing)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공급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생애주기 상의 동태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구조적 모형을 추정하거나, 선호, 성격, 태도 등 내생성 문제를 유발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Heckman and Macurdy, 1980; Lundberg and Rose, 2000; Juhn and McCue, 2017). 또한 자녀의 성비 구성 등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려는 연구도 있었다(Angrist and Evans, 1998; Chun and Oh, 2002; Lee, 2005; Lundborg et al., 2017).

사건사 방법론 역시 결혼과 출산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Angelov et al., 2016; Kleven et al., 2019). Kleven et al.(2019)는 덴마크 자료를 이용하여 양육 페널티를 추정하고자 하였는데 출산 시점이 외생적이라면 간단한 사건사 방법을 통해서도 출산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사건의 전후를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출산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교집단을 이용하는 DID-Event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leven et al.(2019)이 제시한 DID-Event 방법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 노동력 저활용과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모두 여성의 노동공급과 결혼 및 출산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은 여성이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 이러한 이유로 결혼과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여성들의 복귀시점, 복귀 결정요인 및 이후 일자리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생애주기 사건과 노동시장 이동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김지경·조유현, 2003; 김주영·우석진, 2010).

국내 연구에서도 결혼과 출산의 내생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역인과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류기철·박경화, 2009; 남

임금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작았지만, 최근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결혼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Juhn and McCue, 2017).

국현·김대일, 2016). 김우영(2003)은 결혼과 출산 전후의 취업률의 장단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사건이 취업률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Lee(2005)는 한국에서 말미 여성이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말미 여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결혼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Lee et al.(2008)은 지역별 성비와 실업률에 따라 결혼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활용해 이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허은지(2015)는 성향점수 매칭법, 도구변수 모형, 고정효과 모형 등 다양한 계량모형을 이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작게는 약 8%에서 크게는 약 94%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였으나, 방법론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는 정태적 관점에서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동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인과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주관적 생활만족도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imon, 2002; Blanchflower and Oswald, 2004; Stutzer and Frey, 2006). Simon(2002)은 분석표본 내에서 역인과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결혼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을 제시하였다. Stutzer and Frey(2006)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결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초점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결혼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혼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승권·장영식·차명숙·조흥식, 2008; 강성진, 2010). 그러나 이 주제에 있어서 국내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없는 상황이다.

Ⅲ. 분석방법

1. 사건사-이중차분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DID-Event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본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통의 사건사(event study) 방법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두 집단의 추세를 구하고 사건 전 추세가 유사한 두 집단의 사건 이후 나타나는 추세 차이를 해당 사건의 인과적 효과라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결혼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경우를 예로 사용하여 DID-Event 방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DID-Event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혼여성 표본을 이용하여 결혼을 전후로 이들의 고용 변화를 추정해야 한다. 추정결과, 결혼 이후에 여성의 고용 추세가 이전의 추세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결혼시점 전후 추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를 결혼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추세의 변화가 교육, 혼인연령, 지역, 가정배경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이들 다양한 집단이 공통적으로 겪은 사건인 결혼의 효과로 추세가 변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위의 증거만으로 결혼 이후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결혼의 인과적 효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문제는 결혼의 내생성(endogeneity)이다. 위의 결과가 정말로 결혼의 인과적 효과라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결혼한 여성과 하지 않은 여성은 결혼에 대한 선호나 태도, 직업 커리어 지향성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을 선택한 여성에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을 선호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 직장에서 퇴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경력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 여성은 결혼한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결혼 시점이 내생적이라는 점이다. 사건사 방법론의 주요한 식별가정은 사건시점의 외생성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관측되지 않는 요소가 결혼하는 시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을 예상하고 결혼을 진행한다면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공급의 변화를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결혼 시점의 외생성을 만족하는 경우 결혼 직후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시점이 외생적

이라면 결혼 직후의 노동시장 변화는 결혼의 인과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과는 관련 없지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 추세와 비교하게 된다면 결혼 이외의 요인 변화로 발생한 고용의 변화를 결혼의 효과로 잘못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Kleven et al.(2019)을 따라 DID-Event 방법을 사용한다. DID-Event 방법은 결혼의 중기효과를 추정할 때 비교집단의 추세 변화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결혼 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치에 편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DID-Event 방법의 핵심은 비교집단의 설정에 있으며 일반적인 이중차분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공통추세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공통추세 조건의 만족 여부는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의 사건 이전 종속변수 추세의 유사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2. 네 개의 비교집단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개의 서로 다른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네 개의 비교집단은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비교집단을 이용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결과의 민감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각 비교집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식별가정과 장단점은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결혼 이후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첫 번째 비교집단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 즉 ‘미혼여성’이다. 미혼여성은 관측기간 내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정의한다.⁴⁾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연령별 고용확률과 평균 근로소득을 구한 후 이를 같은 교육수준-연령의 기혼여성의 결혼 이후 결혼하지 않았을 가상적 경우의 대응 성과(counterfactual)로 삼았다.⁵⁾ 첫 번째 비교집단을 사용하는 방법은 결혼의 효과를

4) 이러한 방법은 Kleven et al.(2019)에서 출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평생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삼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에서는 표본 수가 부족하여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닌 관측기간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 비교집단을 설정하였다.

5)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정의할 때 결혼 직전의 학력을 이용

보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 연령을 통제한 후에는 결혼으로의 선택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식별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두 번째 비교집단은 기혼여성의 미혼시절 관측치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편의상 이 두 번째 비교집단을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첫 번째 비교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의 표본에서 교육수준-연령별 평균 노동시장 성과를 구하고 이를 기혼여성의 결혼 이후 가상적 대응성으로 삼았다.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에 속하는 여성은 미래에 결혼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결혼을 한 여성과 동일하지만 결혼시점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즉 미혼시절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혼시점의 선택편의는 없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Fadlon and Nielsen(2019)의 방법에 착안하여 처치집단보다 일정 기간 후에 결혼한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 혼인시점의 7년 후인 2009년부터 2018년(사용가능한 표본의 마지막 해)에 결혼한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를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비교집단이라고 부른다.⁷⁾ 세 번째 비교집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두 비교집단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집단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비교집단의 여성에게 가상적 혼인시점을 일관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출생년도의 여성이 2005년에 결혼하였다면 그로부터 7년 후인 2012년에 결혼한 동일 출생년도의 여성을 모두 비교집단으로 사용한다.⁸⁾ 이때 비교집단에 속한 여성이 실제 결혼한 시점은 2012년이지만 2005년을 가상적 결혼시점으로 부과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 이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 노동시장 성과를 미래에 결혼을 할 여성의 결혼 전 노동시장 성과와 비교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인 설득력이 있으나 7년이라는 차이가 작은 것이 아니며

한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결혼 경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직전의 학력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최종학력을 이용하여 가상적 노동시장 성과를 구성하였다.

- 6) 교육수준-연령별 고용확률과 평균 근로소득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집단에 가상적 혼인시점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 7) 본 연구에서 결혼 6년 후까지의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7년 후에 사건을 경험한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KLIPS는 2018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12년에 혼인한 여성의 비교집단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09년 이후 혼인여성’과 비교한 분석에서는 2012년에 혼인한 여성을 처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 8) 2012년에 혼인한 여성을 제외하고 처치집단 중 매치되는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치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개인의 성향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따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leven et al.(2019)를 따라 결혼한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이 마지막 비교집단은 ‘기혼남성’ 비교집단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들은 기혼여성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여성과 상이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결혼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좋은 비교집단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비교집단의 경우와 달리 가상의 결혼 시점을 부여하지 않고 실제 결혼 시점을 사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와 가구 내 노동분업이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Waldfoegel, 1998; Angelov et al., 2016; Chung et al., 2017; Juhn and McCue 2017).⁹⁾

3. 추정식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비교집단을 선정한 뒤에는 결혼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y_{ist} = \sum_{j \neq -1} \beta_j 1[t = j] + \sum_a \alpha_a 1[AGE_{ist} = a] + \sum_b \gamma_b 1[EDU_i = b] + \delta_s + v_{ist} \quad (1)$$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t = 0$)으로 이전과 이후의 상대시점을 {..., -2, -1, 0, +1, +2, ...}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의 회귀식에서 종속변수인 y_{ist} 는 s 년도(calendar year), 상대시점 t 에서 개인 i 의 노동시장 성과변수 또는 생활만족도이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고용과 근로소득, 두 가지를 살펴본다. 생활만족도는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6가지 세부항목별 만족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표준오차는 개인으로 군집화하여 강건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9)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할 경우에는 네 가지 비교집단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만족도 분석에서는 기혼남성 비교집단을 사용하는 경우의 결과만 본문에 제시한다. 남성 외의 비교집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부록 A에 제시하였다.

설명변수 중 $1[t = j]$ 는 상대시점이 j 인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로 본 연구의 경우 j 는 -4부터 +6까지 존재한다. 즉, 분석기간은 결혼 4년 전부터 결혼년도 포함 결혼 후 7년까지이다. 이때 j 가 -1인 경우의 더미변수를 제외함으로써 결혼 1년 전 시점을 기준시점(reference year)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α_j 는 결혼 1년 전과 비교한 상대시점 j 에서의 결혼의 효과를 의미하게 된다.

추가로 연령과 연도를 1년 단위로 통제함으로써 생애주기 추세와 연도별 노동시장 효과 등은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성과의 주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인 교육수준도 2년제 및 전문대, 4년제 대학(고졸 이하 기준) 더미로 통제하였다. 교육수준은 결혼 직전 관측된 학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첫 번째 비교집단인 미혼여성과 같이 결혼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학력을 사용하였고, 가상적 대응성과를 부과할 때에 처치집단의 학력도 마찬가지로 최종학력을 사용하였다.¹⁰⁾ 처치집단에 대하여 위의 식을 추정할 후에는 각 비교집단에 대해서도 같은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11년 기간 동안 회귀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변수가 최소 10번 이상 관측되는 표본을 주된 분석표본으로 이용한다. 균형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충분한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기 위해 11년 중 10번 관측이라는 조건을 채택하였다. 불균형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각 상대시점에서 표본구성이 상이해져 사건의 효과와 표본구성의 효과가 혼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나이의 두 여성이 한 명은 근래에, 다른 한 명은 과거에 결혼한 경우 가까운 상대시점에는 두 여성 모두 표본에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먼 시점의 경우 후자의 여성만이 분석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에 결혼한 경우 결혼 이후의 기간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시점의 차이로 나타나는 표본구성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결혼한 개인으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결혼시점을 제한하더라도 불균형패널에서 표본구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 결혼 전에 응답한 사람들과 결혼 후에 응답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대한 단순 무응답으로 표본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 표본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락횟수가 한 번 이하인 표본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¹¹⁾

10) 대부분 표본에 대하여 결혼 1년 전 학력을 이용하였으나, 결측된 경우 2년 전 학력을 사용하였다.

11) 11년 균형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표본에 포함되는 기혼여성은 214명이다. 1회 누락을 허용하는 경우 균형패널의 57%에 해당하는 122명이 표본에 추가된다. 관측치 수는 기혼여성 기준 총

IV. 데이터

1. 표본 및 변수 구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이다. KLIPS는 1998년 처음 조사되어 매해 표본가구와 가구원을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KLIPS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긴 기간의 가구패널조사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DID-Event 방법을 이용해서 결혼의 동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²⁾

분석기간은 결혼 전 4년부터 결혼 당해 포함 이후 7년으로 총 11년이다. 현재 KLIPS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1년 이전 혹은 2013년 이후에 사건을 경험한 표본은 결혼 전 4년과 결혼 후 7년이라는 분석기간의 설정 때문에 애초에 모든 상대시점(추정식에서 t)에서 관측될 수 없고 데이터의 절단(censoring)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혼인한 여성을 표본으로 한정하였다.¹³⁾ 추가로 분석기간 내에 결혼한 비율이 낮은 출생년도 집단의

2,354개에서 3,574개로 증가한다. 11년 균형패널을 이용한 결과와 불균형패널을 이용한 결과는 부록 A에 제시하였다. 주목할 것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추세 차이가 균형패널에서 가장 크며, 불균형패널을 이용한 경우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균형패널은 표본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설문 조사에서 매해 응답하는 개인의 특성이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상이한 특성의 집단이 비교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의 예로, 결혼 후 가족 중심적인(family oriented) 여성이 가사노동을, 일 중심적인(career oriented) 남성이 시장노동을 전담하는 가구를 생각해보자.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이 있으므로 해당 가구는 설문 조사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때 처치집단인 기혼여성에는 가족 중심적인 개인의 다수 포함되고, 비교집단인 기혼남성에는 일 중심적인 개인이 다수 포함되어 두 집단의 특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고, 집단 간 성향의 차이가 사건 전 추세 차이에 반영될 수 있다.

- 12) 본 연구에서는 1차~2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노동시장 변수에 대한 회고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이전 시점의 노동시장 정보를 포함한 직업력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회고자료의 부정확성, 1차 조사 시점인 1998년 이전 기간을 포함할 경우 상이한 세대가 표본에 포함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직업력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 13) 이혼, 별거, 사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결혼의 효과를 추정할 때 편의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후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10회 이상 관측된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여성 수는 20명으로 기혼여성 표본의 5%에 해당하는 작은 관측치를 보인다. 그러므로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여도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자신의 출생년도 집단에 비해 너무 일찍 결혼한 경우 혹은 반대로 너무 늦게 혼인한 경우) 선택된 표본이 같은 출생년도 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생년도 집단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68-1987년도 사이에 태어난 개인만을 표본으로 한정하였다.¹⁴⁾

노동시장 성과로는 고용과 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KLIPS는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 소득활동을 한 개인을 취업자로 정의한다(휴직자는 취업자로 포함).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을 갖도록 고용 여부 변수를 정의하였다. 근로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 액수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으로 정의하였다.¹⁵⁾ 미취업자이거나 소득이 마이너스인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모든 근로소득은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소득으로 보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결혼 이후 근로시간의 감소나 생산성 하락, 차별 등에 의해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미취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효과를 포함한다.

KLIPS는 전반적 생활만족도와 함께 세부항목별로 여가활동, 가족관계,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친인척 관계 총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만족도 설문은 모두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다섯 가지로 응답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이상을 응답했는지 여부에 대한 지시변수를 만들고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¹⁶⁾

2. 요약통계

<표 3>은 처치집단인 기혼여성과 각 비교집단의 혼인연령 및 학력의 요약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은 기혼여성의 미혼 시절을 이용한 비교집단이므로 교육수준 및 혼인연령이 기혼여성과 동일하다.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표본을 보면

14) 출생 코호트 내에서 해당 기간에 결혼한 비율이 10%가 넘는 경우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남성은 68-85년생, 여성은 70-87년생이 이에 해당되어 68-87 출생 코호트를 표본으로 최종 사용하였다.

15)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취업자로 정의할 경우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부록 A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16)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차부터, 그 외의 생활만족도는 1차부터 조사되었다.

여성은 약 28세, 남성은 약 31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12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나이는 각각 29세, 32세이다. 초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표본이 2002년에서 2012년 결혼한 개인임을 고려할 때 초혼 나이가 전체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후 결혼한 집단은 동일한 출생년도 집단에서 처치집단보다 늦게 결혼한 여성이므로 초혼 나이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학력의 경우 기혼남성은 기혼여성과 유사한 교육수준의 분포를 가지는 반면, 2009년 이후 결혼한 여성과 미혼여성 비교집단은 기혼여성과 유의한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2009년 이후 결혼한 여성은 처치집단인 기혼여성에 비하여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더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비율이 낮았다. 미혼여성은 결혼 전 학력을 정의할 수 없으므로 최종학력을 제시하였다.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중이 높고, 고학력자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¹⁸⁾

<표 4>는 노동시장 성과의 요약통계량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어진 통계량을 이용하여 기혼남성을 기혼여성의 비교집단으로 상정하고 간단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결혼 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용률은 약 6%p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처치 이전 차이를 고려하여 결혼의 효과에 대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구해 보면 결혼 당해에 약 18%p, 1년 후 약 34%p, 6년 후 효과는 45%p가 된다. 근로소득 또한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부터 격차가 존재하였다. 결혼 전 여성의 근로소득은 남성에 비하여 64만 원 낮았다. 이를 고려하면 결혼 당해 40만 원, 1년 후에 80만 원, 6년 후에 161만 원의 간단한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계산된다.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에 혼인한 여성 비교집단으로 상정한 경우 남성 비교집단에 비하여 작은 이중차분법 추정치가 나오지만, 비교집단에 상관없이 기혼여성의 고용률과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는 남성과 여성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여섯 가지 세부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스러움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결혼 전 남성이 여성보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 외에는 남녀 만족도 사이에 큰 차이 존재하지 않는

17)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결혼시점이 7년 늦는 경우로 비교집단을 설정하였지만, 기초통계량에서는 약 4년의 차이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동패널이 현재 2018년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어 2012년에 혼인한 여성과 대응되는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8년에 결혼한 여성이 설문시점에서 모두 파악되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또한, 처치집단별 대응되는 비교집단의 수가 다르므로 시점의 차이가 7년보다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8) 2012년에 혼인한 여성을 제외하더라도 처치집단의 혼인연령과 교육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1년 후에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 수입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여성에서 더 높아졌으나 그 외에는 남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장 성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이중차분 추정치를 계산해 살펴보면 여성의 가족 수입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여가활동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통계의 수치를 통하여 결혼이 이후 6년 동안 여성의 고용과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만족도 분석에서 남녀 사이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항목에 따라 결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의 부정적인 효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V. 분석 결과

1. 노동시장 성과

먼저 결혼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¹⁹⁾ [그림 1]은 결혼에 따른 여성의 고용확률 변화를 보여준다. 처치집단의 추세는 모든 그림에서 실선에 해당한다. 그림은 각각 순서대로 기혼남성(A), 미혼여성(B), 미혼시절 여성(C), 2009년 이후 혼인여성(D)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기혼여성의 결혼 전 고용확률은 연도, 연령, 학력수준의 효과를 제거한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결혼한 해(0)에 고용률의 감소가 처음 나타나며, 이후 지속해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6년 차(+5기)에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 후 다음 해인 결혼 7년 차에 고용률이 미세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고용률이 회복되는 추세가

19)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중치를 사용한 분석에서 KLIPS에서 제공하는 98표본 중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이때 12차 조사 이후 추가된 표본의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치집단의 경우 8명(약 80개의 표본)이 분석에서 사라지며, 2009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비교집단)의 경우 12차 이후에 들어온 표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작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장기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후 좀 더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시계열 패널데이터가 필요하다. 기혼남성 비교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비교집단의 결혼 전 추세는 기혼여성의 추세와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공통추세 조건이 만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²⁰⁾

결혼은 단기적으로 여성의 고용확률 감소를 가져온다. 처치집단인 기혼여성의 경우 혼인 당해 연도부터 3년 동안 매해 약 12%p씩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점을 포함하여 6년 동안 고용확률의 하락을 경험하여 고용률이 결혼 직전보다 약 43~46%p 낮아졌다. 결과는 비교집단이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결혼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확률과 달리 기혼여성의 결혼 전 평균 근로소득에는 유의한 변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용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 시점에 유의하고 큰 소득의 변화가 존재하였고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과의 결혼 전 소득 추세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중기효과 뿐 아니라 단기효과에서도 비교집단과 비교한 추정치를 결혼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남성 비교집단의 경우 결혼 2년 전을 제외하고 기혼여성과 결혼 전 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¹⁾

결혼 후 단기적으로 여성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8만 원 정도 하락한다. 고용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산정했을 때 가장 큰 음(-)의 효과가, 2009년 이후 혼인한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산정했을 때 가장 작은 음의 근로소득 효과가 추정되었다. 결혼 1년 후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경우 약 70만 원, 2009년 이후 결혼한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경우 21만 원의 근로소득 감소가 추정되며 이는 각각 기혼여성의 결혼 전 월 평균소득의 50%, 15%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혼남성 비교집단의 경우 결혼 전 소득추세가 유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집단으로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혼남성 비교집단을 제외하면, 미혼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20) 부록 A의 <표 A1>은 기혼여성 각 비교집단의 상대시점별 고용률 추세 차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식(1)에서와 달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추정치는 상대시점과 처치 여부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이다. 표준오차는 개인으로 군집화하여 강건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처치와 나이, 처치와 교육수준, 처치와 연도의 교차항을 모두 포함시켰으로써 식(1)과 같이 집단 간 상이한 연령효과, 교육수준 효과, 연도 효과를 허용하였다.

21) 부록 A의 <표 A2>에 기혼여성 각 비교집단의 근로소득 추세 차이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추정치는 <표 A1>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되었다.

큰 음의 근로소득 효과가 추정된다. 결혼 2년 차에 기혼여성은 미혼여성 비교집단에 비해 약 38만 원의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이는 결혼 전 평균 임금의 약 27%의 크기이다.

여성의 근로소득은 관측 기간 동안 약 70만 원 감소한다. 남성을 제외한 모든 비교집단은 결혼 6년 후와 결혼 직전의 소득 변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성의 중기 근로소득 효과는 결혼 전 월 소득의 50%인 -70만 원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경우 결혼 직후가 아닌 결혼 전부터 지속적인 소득 상승이 있는데 이는 결혼에 있어 양(+의 선택편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결혼의 근로소득 효과로 정의할 경우 음(-)의 근로소득 효과는 2배 이상 크게 추정될 것이다.²²⁾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결혼의 효과는 출산의 효과를 포함한 개념이다. 결혼의 효과만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기혼여성 중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고용률과 근로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은 각각 기혼여성 전체 표본과 기혼여성 중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고용 및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때 기혼여성의 약 93%가 결혼 이후 출산하였고, 대부분의 기혼여성이 출산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미출산 여성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미출산 여성에게는 중기적으로 결혼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중기 결혼효과의 대부분이 출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된 상태가 아닐 경우 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결혼 이후 소득 변화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여 발생하는 소득손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 당해를 포함하여 이후 단 한 번의 경력단절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4]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혼인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한 여성의 근로소득은 기혼남성 비교집단과 마찬가지로

22) 논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코호트 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코호트는 상대적으로 어린 코호트(78년생-87년생)와 나이가 많은 코호트(68년생-77년생)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어린 코호트에서 음의 결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을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결혼한 여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린 코호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르게, 나이가 많은 코호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게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린 코호트의 결혼 시점에서 나이는 27.5세, 나이가 많은 코호트는 29.8세이며 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결혼 나이의 차이는 노동시장 결속 정도, 직업 커리어 지향성 등 관측되지 않는 요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코호트 간 분석에서 나타난 결혼의 효과는 코호트 간 차이뿐 아니라 내생적인 요인의 효과가 포함된 결과라고 예상된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 결혼 이후에 항상 고용된 여성의 경우 결혼의 음의 근로소득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결혼 이후 비고용 상태로 전환되는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²³⁾

2. 만족도

다음으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자. 만족도 분석에서는 기혼남성과 비교한 결과만 제시하였는데,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생활환경이 전혀 다르고 만족도의 기준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남녀가 어떻게 다른 만족도를 보이는지 역시 흥미로운 주제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림 5]는 결혼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이전에는 만족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결혼 당해 연도에 만족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이 결혼 직전 해보다 결혼 2년 차에 ‘만족스러움 이상’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약 27%p 증가하였고, 남성은 높은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21%p 증가했다. 그러나 남녀 모두 결혼 2년 차에 높은 만족 수준을 가질 확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 생활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또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세부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결혼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세부항목으로는 총 여섯 가지 만족도가 존재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유사한 성격의 만족도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결혼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가족과 관련된 항목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 관계 만족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가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 관련 만족도인 가족 관계(A)와 친인척 관계(B) 만족도에 관한 결과가 [그림

23) 결혼 이후 단 한 번의 경력단절이 없던 기혼여성만을 표본으로 구성하는 경우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한 해를 포함하여 2년 동안 가족관계 관련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이후 6년 동안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²⁴⁾

경제적 상황과 연관된 만족도에서는 남녀가 거의 비슷하나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 전후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여성은 결혼 이후에 가족 수입에 대해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하여 남성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만족도가 결혼 이후에 상승하고 약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초반에 남성보다 만족도가 더 상승한 후 다시 남성의 추세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에 관련된 만족도를 살펴보자. 우선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상승하여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전후 여가생활에 관련된 만족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직후 여가 만족도가 작지만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의 만족도 변화 패턴은 남성의 변화 패턴과 비슷하지만, 초기에 상승하는 정도가 약하다.²⁵⁾

VI.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결혼과 출산의 효과는 결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동태적 분석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DID-Event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과 함께 기혼남성 등 다양한 비교집단을 사용한 결과를 추정하고

24) 본문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만족도 변수를 ‘만족스러움 이상’ 대신에 ‘보통 이상’으로 분류한 경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만족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여기서 만족스러움 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보통의 만족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 이후에 만족스러움 이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5) 여가생활의 경우에는 만족도를 만족스러움 이상이 아닌 보통 이상인 경우로 분류했을 때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은 여전히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하여, 여성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에 보통과 보통 이하의 분포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낸 경우가 증가한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비교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정 결과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혼 후 6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효과가 축적되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결혼 직후 여성은 단기적으로 최소 11%p에서 최대 25%p에 이르는 고용확률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후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결혼 6년 차에는 고용률이 46%p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혼여성은 미혼여성에 비해 작게는 8%에서 크게는 94%의 낮은 노동공급 확률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 비교집단과 기혼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시점에 따라 13%p에서 46%p로 다양한 것을 고려했을 때, 선행연구 표본의 결혼시점 구성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우영(2003)은 결혼 1년 후에 약 11.2%의 취업률 감소를 발견하였다.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선행연구와 유사한 단기 결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최대 45%p의 고용률 감소가 추정된 것에 비하여 김우영(2003)에서는 단기 효과가 중기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 후 단기적으로 여성의 근로소득은 약 15%-27% 감소하고, 중기적으로는 약 50% 감소한다. 고용률이 지속해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고용률의 변화를 반영하는 근로소득의 변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 성과와 달리 여성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결혼 이후 단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결혼 2년 차에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차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 후 6년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만족도와 사회생활에 관련된 만족도에서 남녀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만족도에서는 남녀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높아졌으며 사회적 친분관계 대한 만족도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가족 수입이나 주거환경에 관한 결과는 남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부정적인 결과는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은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혼외 출산이 2%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혼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Hwang, 2016; 이상림·이철희·오신휘, 2019).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무자녀 기혼여성 비율은 꾸준히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2010년 이후 무자녀 기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7년 기준 40대 후반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여전히 5%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이상림·이철희·오신휘, 2019). 이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관된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결혼 이후 경력단절의 문제는 상당 부분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자녀 기혼여성에게는 음의 결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결혼 직후 나타나는 음의 고용 효과와 근로소득 효과는 결혼의 직접적인 효과이기도 하지만 향후 출산에 대한 계획과 기대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및 출산에 의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논의는 출산과 양육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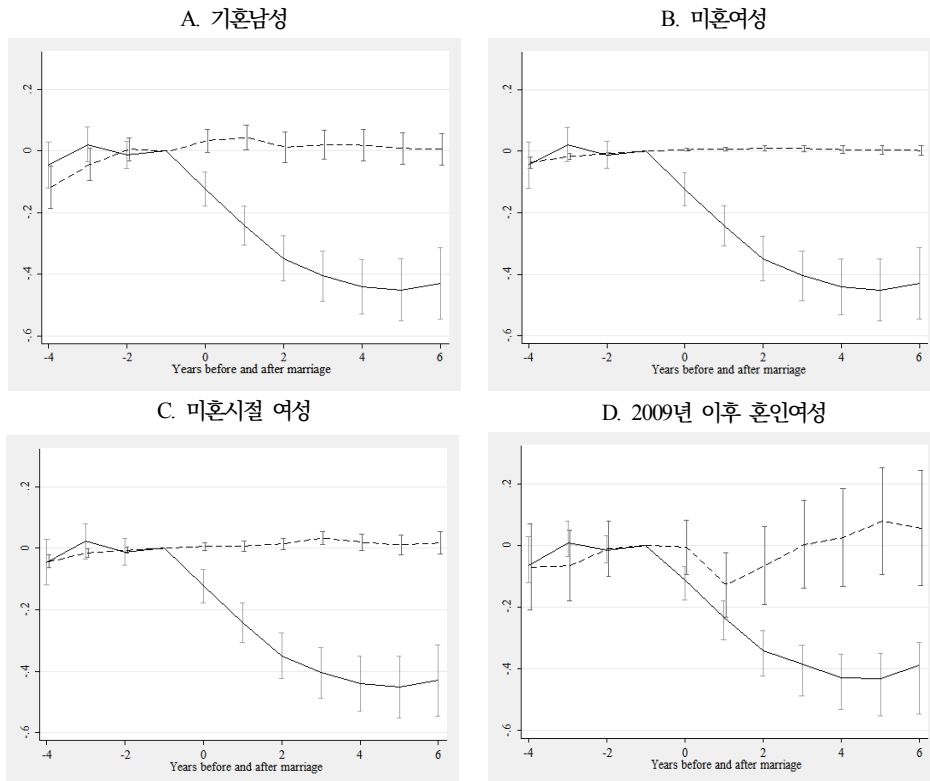
- 강성진.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권 1호 (2010. 3): 5-36.
- 강종구.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BOK 경제연구』 2017-28호 (2017. 8): 1-51.
- 김대일. 「기혼 여성의 고용 변화와 자녀의 효과」. 『경제학연구』 66권 3호 (2018. 9): 123-166.
- 김승권·장영식·차명숙·조홍식.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김영옥. 「여성의 동태적 노동공급: 취업연속성과 첫 노동시장 퇴출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5권 2호 (2002. 12): 5-40.
- 김우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3권 1호 (2003. 3): 67-101.
- 김주영·우석진. 『노동 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0.
- 김지경·조유현.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권 3호 (2003. 12): 181-207.
- 남국현·김대일.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3권 2호

- (2016. 12): 25-52.
- 류기철 · 박영화.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권 1호 (2009. 4) 1-23.
- 박수미.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권 2호 (2002. 4) 145-176.
- 이상림 · 이철희 · 오신휘.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이철희 · 김규연.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2019. 12): 1-29.
- 이혜원. 「현안분석: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변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재정포럼』 216권 0호 (2014. 6): 39-5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2019. (a)
- 통계청.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9. (b)
- 허은지.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분석」. 『여성경제연구』 12권 2호 (2015. 12) 67-88.
- Angelov, Nikolay, Johansson, Per, and Lindahl, Erica. “Parenthood and the Gender Gap in Pay.”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 (3) (July 2016): 545-579.
- Angrist, Joshua D., and Evans, William N. “Children and Their Parents' Labor Supply: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Family Size.” *American Economic Review* 88 (3) (June 1998): 450-477.
- Blanchflower, David G., and Oswald, Andrew J.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7-8) (July 2004): 1359-1386.
- Blau, Francine D., and Kahn, Lawrence M. “Changes in the Labor Supply Behavior of Married Women: 1980-2000.” *Journal of Labor Economics* 25 (3) (July 2007): 393-438.
- Budig, Michelle J., and England, Paula. “The Wage Penalty for Mother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 (April 2001): 204-225.
- Chun, Hyunbae, and Oh, Jeungil. “An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e of the Effect of Fertility o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pplied*

- Economics Letters 9 (10) (August 2002): 631-634.
- Chung, Yoonkyung, Downs, Barbara, Sandler, Danielle H., and Sienkiewicz, Robert. "The Parental Gender Earnings Gap in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Economic Studies Working Paper* (January 2017): 17-68.
- Fadlon, Itzik, and Nielsen, Torben Heien. "Family Health Behavior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 (9) (September 2019): 3162-3191.
- Glauber, Rebecca. "Marriage and the Motherhood Wage Penalty among African Americans, Hispanics, and Whi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4) (November 2007): 951-961.
- Heckman, James J., and Macurdy, Thomas E. "A Life Cycle Model of Female Labour Suppl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1) (January 1980): 47-74.
- Hwang, Jisoo. "Housewife, 'Goldmiss', and Equal: the Evolution of Educated Women's Role in Asia and the U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9 (2) (April 2016): 529-570.
- Juhn, Chinhui, and McCue, Kristin. "Specialization Then and Now: Marriage, Children, and the Gender Earnings Gap across Cohor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 (1) (February 2017): 183-204.
- Kleven, Henrik, Landais, Camille, and Søgaard, Jakob Egholt.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 (4) (October 2019): 181-209.
- Lee, Bun Song, Jang, Soomyung, and Sarkar, Jayanta.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Marriage: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19 (2) (April 2008): 138-154.
- Lee, Jungmin. "Marriage, Female Labor Supply, and Asian Zodiacs." *Economics Letters* 87 (3) (June 2005): 427-432.
- Lundberg, Shelly, and Rose, Elaina. "Parenthood and the Earnings of Married Men and Women." *Labour Economics* 7 (6) (November 2000): 689-710.
- Lundborg, Petter, Plug, Erik, and Rasmussen, Astrid Würtz. "Can Women Have Children and a Career?: IV Evidence from IVF Treat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7 (6) (June 2017): 16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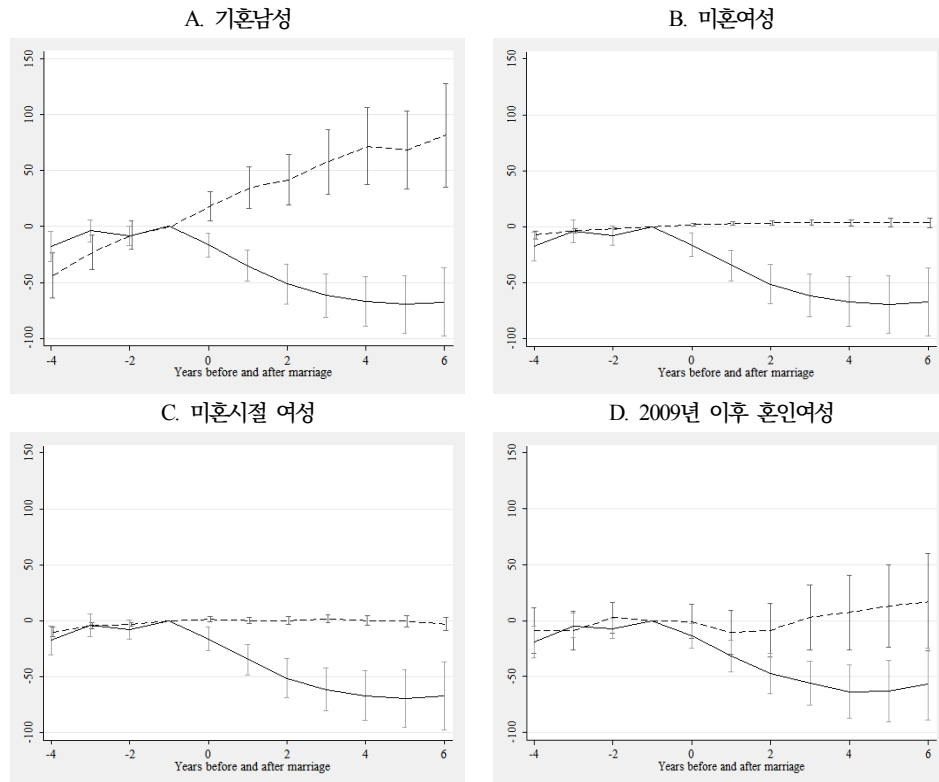
- Mincer, Jacob.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pp. 63-105.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Nakamura, Alice, and Nakamura, Masao. "The Econometrics of Female Labor Supply and Children." *Econometric Reviews* 11 (1) (January 1992): 1-71.
- Olivetti, Claudia, and Petrongolo, Barbara. "Gender Gaps Across Countries and Skills: Demand, Supply and the Industry Structur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7 (4) (October 2014): 842-859.
- Rosenzweig, Mark R., and Wolpin, Kenneth I. "Life-Cyc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Causal Inferences from Household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2) (April 1980): 328-348.
- Simon, Robin W. "Revisiting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Marital Status,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 (4) (January 2002): 1065-1096.
- Stutzer, Alois, and Frey, Bruno S. "Does Marriage Make People Happy, or Do Happy People Get Married?" *Journal of Socio-Economics* 35 (2) (April 2006): 326-347.
- Waldfogel, Jane. "Understanding the 'Family Gap' in Pay for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1) (February 1998): 137-156.

[그림 1] 결혼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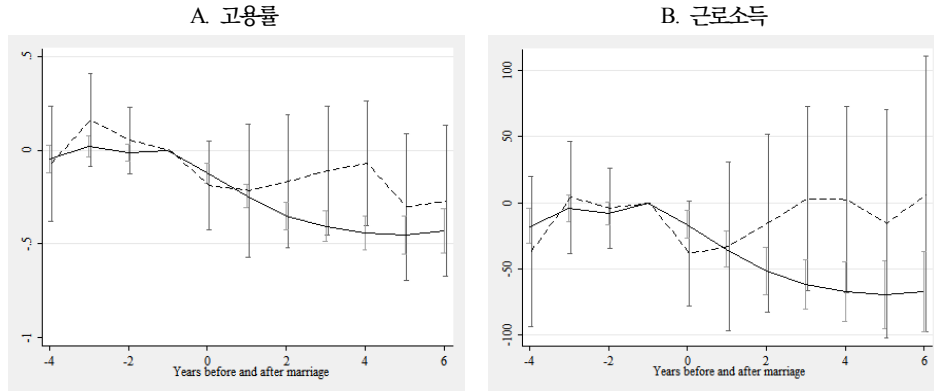
주: 위의 그림은 추정식(1)을 이용한 점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오차로는 개인으로 근 집화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 여부이다. 실선은 처치집단인 기혼여성의 추정치로 3,574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준시점인 결혼 1년 전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82%이다. 점선은 비교집단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그림은 각각 순서대로 기혼남성(A), 미혼여성(B), 미혼시절 여성(C), 2009년 이후 혼인여성(D)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미혼시절 여성은 기혼여성의 미혼시절 관측치를,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은 동일 코호트에서 처치집단보다 7년 후에 결혼한 여성을 의미한다. 기혼남성의 관측치는 총 3,375개이며 기준시점에서의 고용률은 88%이다. 미혼여성과 미혼시절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연령별 고용확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미혼여성과 미혼시절 여성의 관측치 수는 각각 3,574개, 3,431개이고 기준시점에서 고용률은 64%, 81%이다. 2009년 이후 혼인여성에게는 처치집단의 결혼시점을 가상적 결혼시점으로 부과하였다. 기준시점에서 고용률은 65%이며 1,492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림 2]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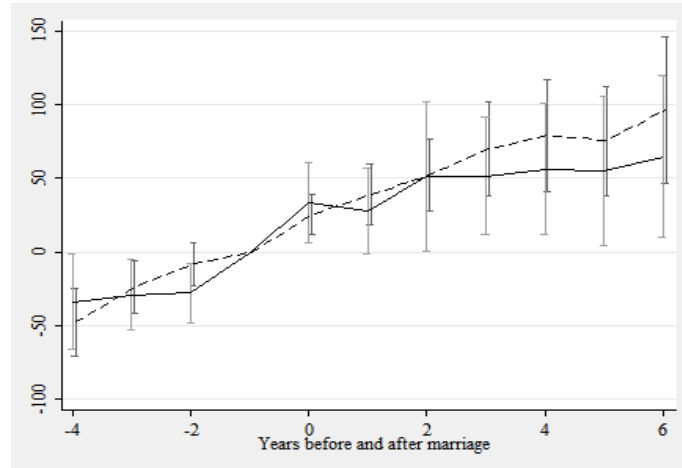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단위는 일반 원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총 3,449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기준시점에서 근로소득은 138.7만 원이다. 비교집단의 관측치 수는 기혼남성 3,232개, 미혼 여성 3,449개, 미혼시절 여성 3,312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459개이다. 기준시점에서 근로소득은 각각 202.5만 원, 103.9만 원, 133.7만 원, 93.1만 원이다.

[그림 3] 출산 여부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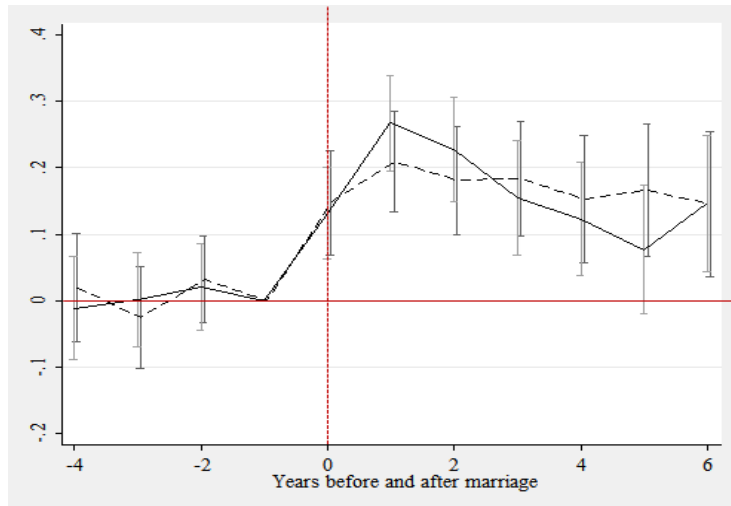
주: 위의 그림은 추정식(1)을 이용하여 처치집단과 처치집단 중 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 변수는 (A)고용 여부와 (B)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소득의 분석단위는 일반 원이다. 실선은 처치집단, 점선은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 집단의 점추정치이다. 개인으로 균집화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 또한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336명의 여성 중 6.6%인 22명이 45세 이전까지 자녀를 낳지 않았다. 고용률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 수는 기혼여성의 경우 3,574개, 미출산 여성의 경우 235개이다. 근로소득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의 수는 기혼여성 3,449개, 미출산 여성 235개이다.

[그림 4] 고용을 유지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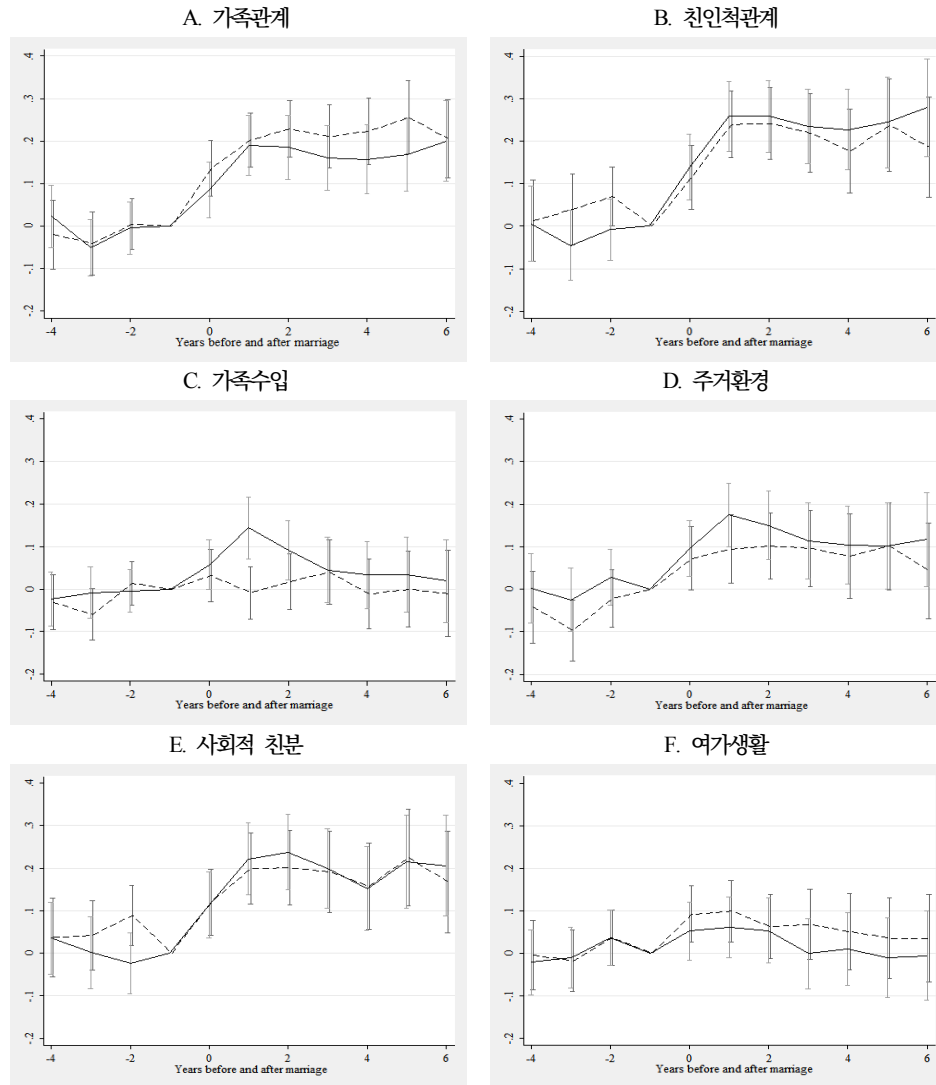
주: 위의 그림은 추정식(1)을 이용하여 결혼 이후 단 한 번의 경력단절도 없었던 여성과 기혼남성 비교집단 전체를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단위는 일반 원이다. 실선은 경력단절이 없던 기혼여성, 점선은 기혼남성의 점 추정치이다. 개인으로 군집화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 또한 제시하였다. 기혼여성 325명 중 23%인 76명의 여성이 결혼 후에 단 한 번의 경력단절도 경험하지 않았다. 기혼남성 비교집단은 경력단절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분석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결혼 이후 경력단절이 없었던 기혼여성 관측치 수는 798개, 기혼남성 비교집단 관측치 수는 2,699개이다.

[그림 5]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주: 위의 그림은 추정식(1)을 이용하여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비교집단을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만족 이상' 응답 여부이다. 실선은 기혼여성, 점선은 기혼남성 비교집단의 점추정치이다. 개인으로 군집화한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 또한 제시하였다. 기혼 여성 분석에서는 3,517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기준시점인 결혼 1년 전 기혼여성이 좋음 이상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41%이다. 기혼남성 분석에는 총 3,320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으며 기준시점에서 좋음 이상의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42%이다.

[그림 6]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주: [그림 5]의 주석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림은 각각 가족관계(A), 친인척관계(B), 가족수입(C), 주거환경(D), 사회적 친분(E), 여가생활(F) 만족도에 '만족 이상' 응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 기혼여성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결측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3,517개의 관측치를 사용하며, 친인척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의 경우 2,979개의 관측치를 사용한다. 기혼남성의 경우 3,041개의 관측치를 사용하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제외한 그 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3,331개의 관측치를 사용한다. 결혼 전 항목별 만족도에 대해 좋음 이상을 응답 확률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	미국	일본	중국	OECD
15 ~ 19	8.5	35.0	15.6	32.0	25.4
20 ~ 24	53.5	68.2	69.4	69.3	59.5
25 ~ 29	69.6	75.6	77.1	82.1	70.9
30 ~ 34	54.8	73.7	67.8	83.2	69.2
35 ~ 39	55.9	74.1	66.2	84.4	70.4
40 ~ 44	65.9	76.2	71.6	84.8	73.3
45 ~ 49	65.6	76.8	75.8	80.1	73.5
50 ~ 54	61.3	74.6	72.8	62.4	69.5
55 ~ 59	53.4	68.4	63.3	53.8	58.7
60 ~ 64	41.5	50.7	45.7	40.6	36.1
65 ~ 69	32.6	27.0	27.4	27.6	17.4
70 ~ 74	26.0	14.7	16.0	13.9	9.1
75+	10.7	5.3	5.1	5.6	3.2

주: OECD 통계.

〈표 2〉 비교집단 비교

비교집단	식별가정	장점	단점
미혼여성	교육, 연령을 통제한 후에는 결혼으로의 선택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개인이므로 결혼의 효과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비교집단이다.	결혼으로의 선택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별가정이 위배될 확률이 높다.
미혼시절 여성	교육, 연령을 통제한 후에 결혼으로의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결혼시점에서의 선택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혼 여성보다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다.	결혼시점의 차이가 크다면 결혼시점에서의 선택편의도 존재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동일 코호트 내에서 결혼시점이 충분히 가까운 경우(본 연구에서는 7년 이내) 결혼시점에서의 선택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적 혼인시점을 일관되게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 코호트에서 유사한 결혼시점을 갖기 때문에 집단 간 유사성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7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가깝지 않아 두 집단 간 결혼시점에서의 선택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기혼남성	남성과 여성의 결혼으로의 선택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적 결혼시점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기혼남성 또한 결혼의 영향을 받은 집단이며, 남성과 여성의 공통추세조건이 만족되기 어렵다.

〈표 3〉 기초통계량: 혼인연령 및 교육수준

	(1)	(2)	(3)	(4)	(5)
	기혼여성	기혼남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	기혼여성 (최종학력)	미혼여성 (최종학력)
결혼시점의 나이	28.26 [0.17]	30.85 [0.21]	32.31 [0.19]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0.28 [0.03]	0.28 [0.03]	0.21 [0.03]	0.24 [0.02]	0.32 [0.01]
2년제 및 전문대 졸업	0.34 [0.03]	0.33 [0.03]	0.28 [0.04]	0.33 [0.03]	0.33 [0.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37 [0.03]	0.39 [0.03]	0.51 [0.04]	0.43 [0.03]	0.35 [0.0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근로소득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교육수준은 결혼 직전(결혼 1년 혹은 2년 전) 학력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기혼여성은 325명, 기혼남성은 305명, 2009년 이후 결혼한 여성은 192명이다. 그중 26명은 교육수준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경우 1,394명이 사용된다.

〈표 4〉 기초통계량: 고용률 및 근로소득

	(1)	(2)	(3)	(4)	(5)
	처치집단				
	기혼여성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
1년 전 고용	0.82	0.88	0.64	0.81	0.65
	[0.02]	[0.02]	[0.01]	[0.01]	[0.04]
결혼 당시 고용	0.70	0.94	0.65	0.81	0.69
	[0.03]	[0.01]	[0.01]	[0.01]	[0.04]
1년 후 고용	0.57	0.97	0.65	0.79	0.63
	[0.03]	[0.01]	[0.00]	[0.01]	[0.04]
6년 후 고용	0.45	0.96	0.63	0.72	0.83
	[0.03]	[0.01]	[0.00]	[0.02]	[0.03]
1년 전 근로소득	138.66	202.47	103.87	133.65	93.10
	[4.80]	[7.05]	[1.49]	[1.79]	[6.89]
결혼 당시 근로소득	125.73	230.05	108.5	136.07	105.06
	[6.33]	[6.63]	[1.51]	[2.10]	[7.10]
1년 후 근로소득	112.26	256.56	113.79	137.81	107.51
	[6.73]	[7.50]	[1.51]	[2.56]	[8.29]
6년 후 근로소득	100.17	324.74	127.47	126.19	174.83
	[7.72]	[11.69]	[1.95]	[4.59]	[9.35]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각 종속변수 분석에서 사용하는 표본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 여부와 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소득의 분석단위는 일반 원이다. 미혼여성과 미혼시절 여성 자료는 개별 자료가 아닌 교육수준·연령별 고용률과 평균 근로소득을 이용하였다.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는 가상적 결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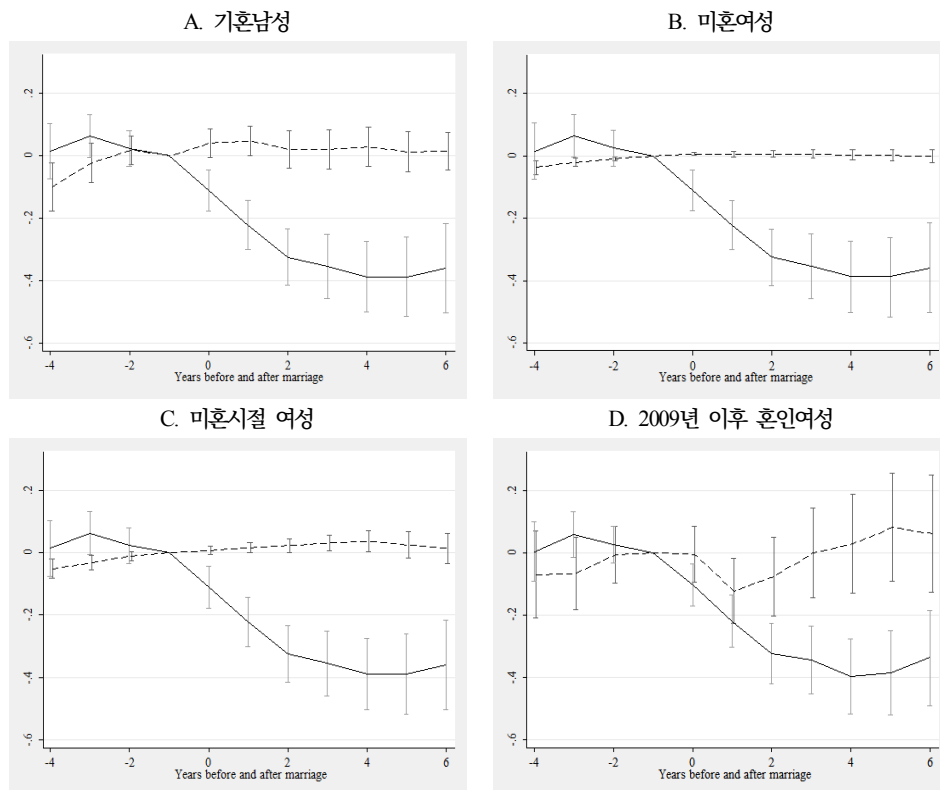
〈표 5〉 기초통계량: 생활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전반적 생활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가족수입		주거환경		사회적친분		여가생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년 전 만족도	0.41	0.42	0.66	0.65	0.49	0.5	0.19	0.22	0.41	0.49	0.47	0.48	0.32	0.29
	[0.03]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결혼 당시 만족도	0.55	0.58	0.75	0.78	0.63	0.62	0.26	0.27	0.52	0.55	0.59	0.61	0.38	0.38
	[0.03]	[0.03]	[0.03]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1년 후 만족도	0.71	0.64	0.85	0.85	0.73	0.74	0.35	0.23	0.61	0.59	0.69	0.69	0.41	0.39
	[0.03]	[0.03]	[0.02]	[0.02]	[0.03]	[0.03]	[0.03]	[0.02]	[0.03]	[0.03]	[0.03]	[0.03]	[0.03]	[0.03]
6년 후 만족도	0.62	0.6	0.83	0.78	0.68	0.64	0.29	0.27	0.61	0.58	0.62	0.62	0.37	0.35
	[0.03]	[0.03]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이다. 각 종속변수 분석에서 사용하는 표본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세부항목 만족도에 대해 ' 좋음 이상' 응답 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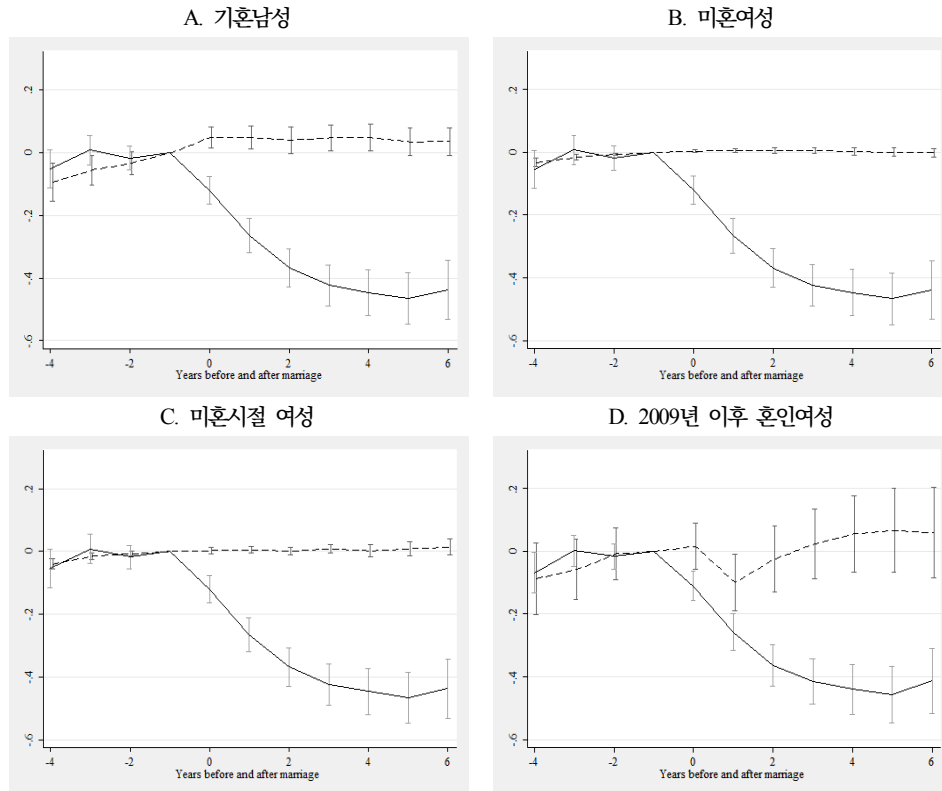
부 록 A

[그림 A1] 결혼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균형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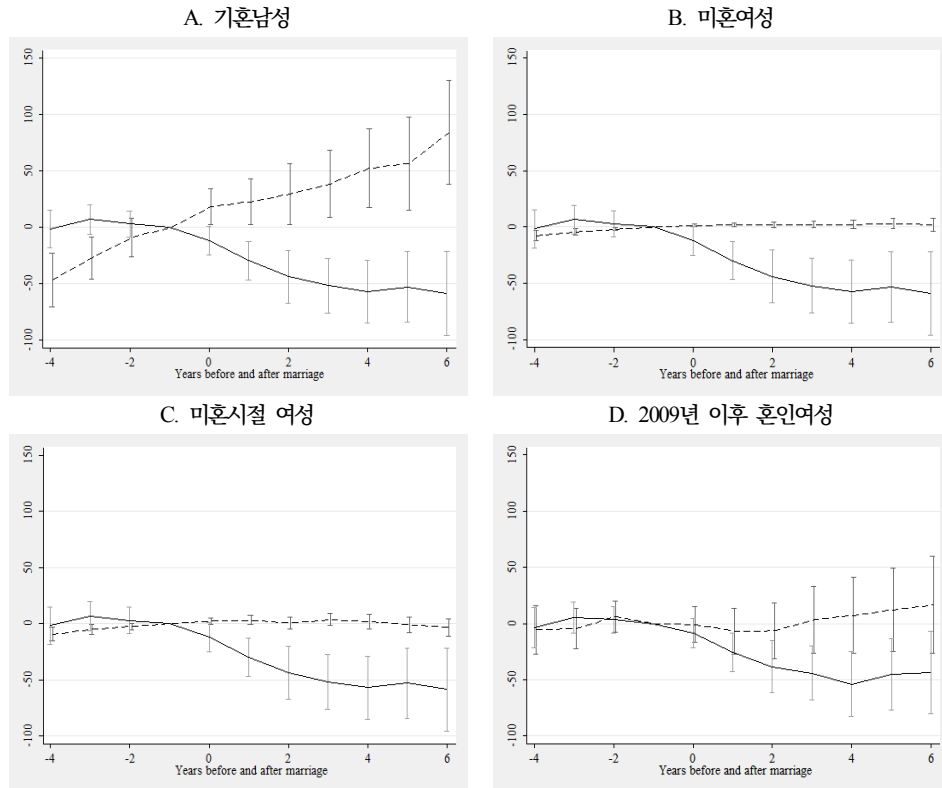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 여부다. 균형패널인 경우로 분석을 제한하였다. 기혼여성 분석에는 2,354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기혼남성 2,145개, 미혼 여성 2,354개, 미혼시절 여성 2,194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469개이다.

[그림 A2] 결혼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불균형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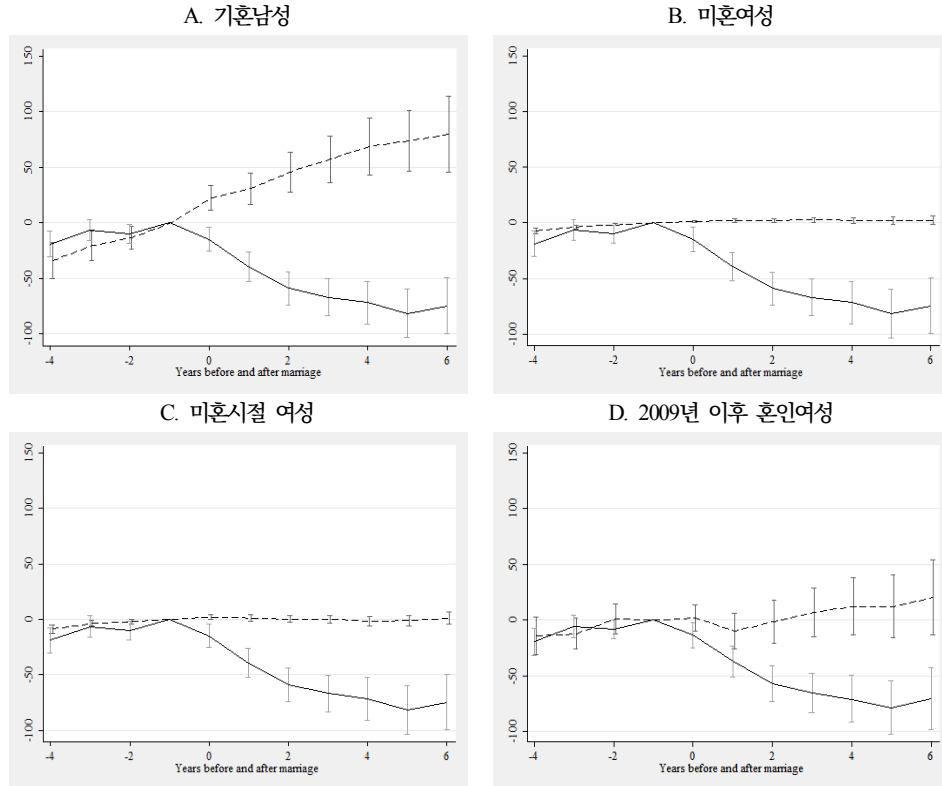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 여부다. 관측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다. 기혼여성 분석에는 5,138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기혼남성 5,051개, 미혼 여성 5,138개, 미혼시절 여성 5,025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950개이다.

[그림 A3]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균형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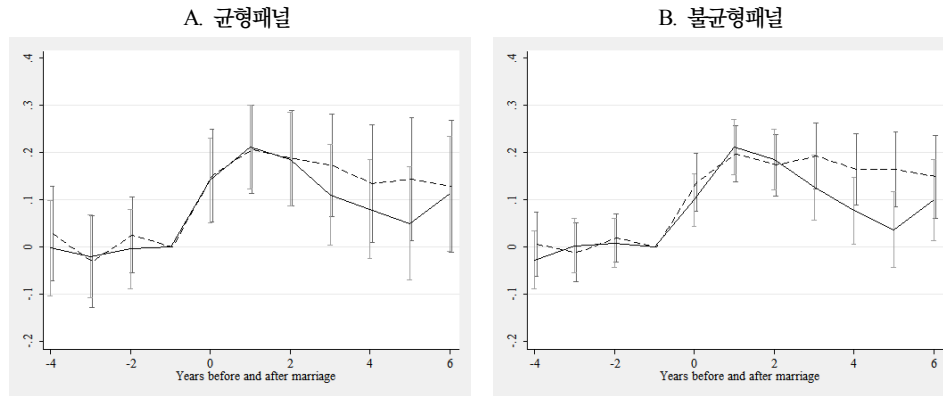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균형패널인 경우로 분석을 제한하였다. 기혼여성 분석에는 2,189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기혼남성 2,002개, 미혼 여성 2,189개, 미혼시절 여성 2,043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364개이다.

[그림 A4]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불균형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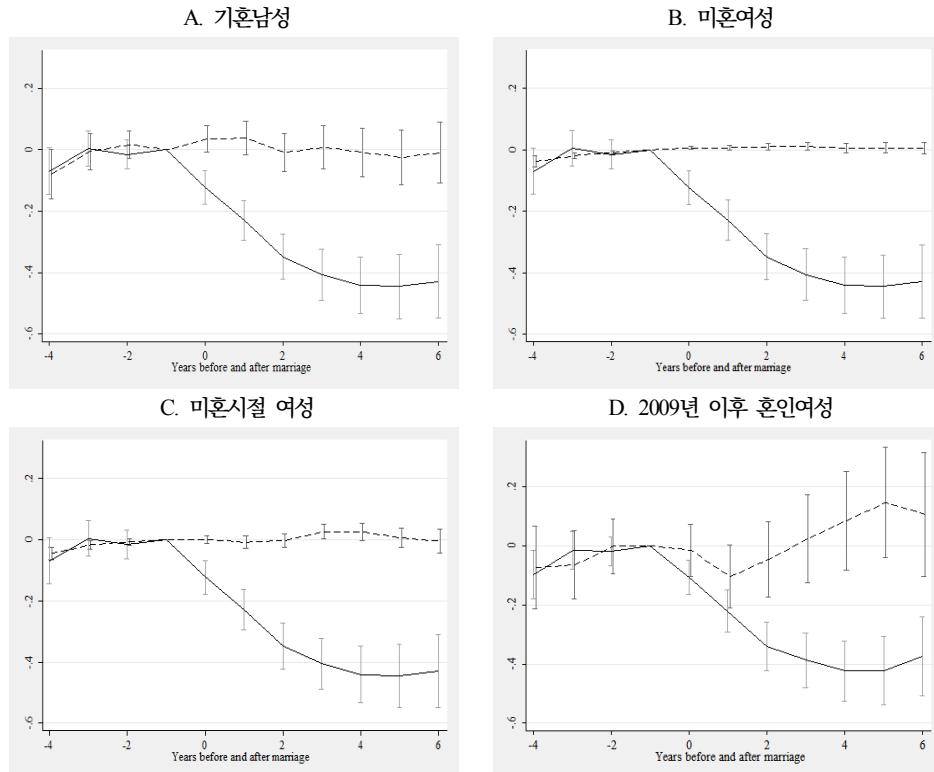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하였다. 관측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다. 기혼여성 분석에는 5,077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기혼 남성 4,938개, 미혼 여성 5,077개, 미혼시절 여성 4,968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929개이다.

[그림 A5]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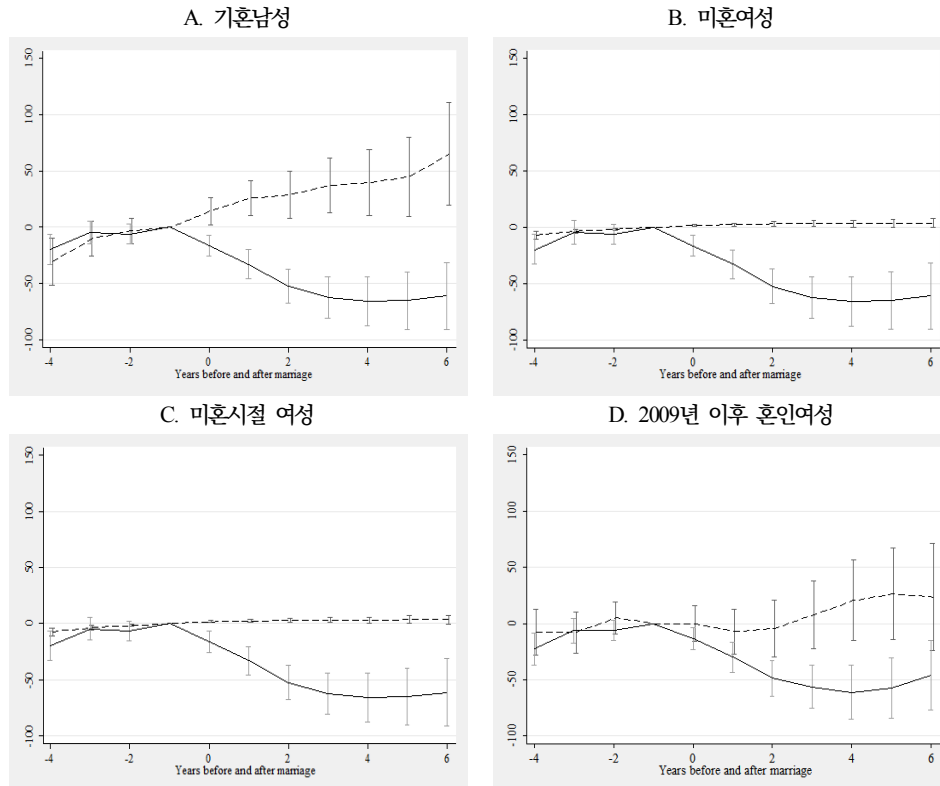
주: [그림 5]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만족 이상’ 응답 여부이다. 왼쪽 그림은 모든 시점에서 응답한 균형패널을, 오른쪽은 응답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다. 균형패널의 경우 2,227개의 기혼여성과 2,090개의 기혼남성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불균형 패널에서는 5,106개의 기혼여성과 5,027개의 기혼남성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그림 A6] 결혼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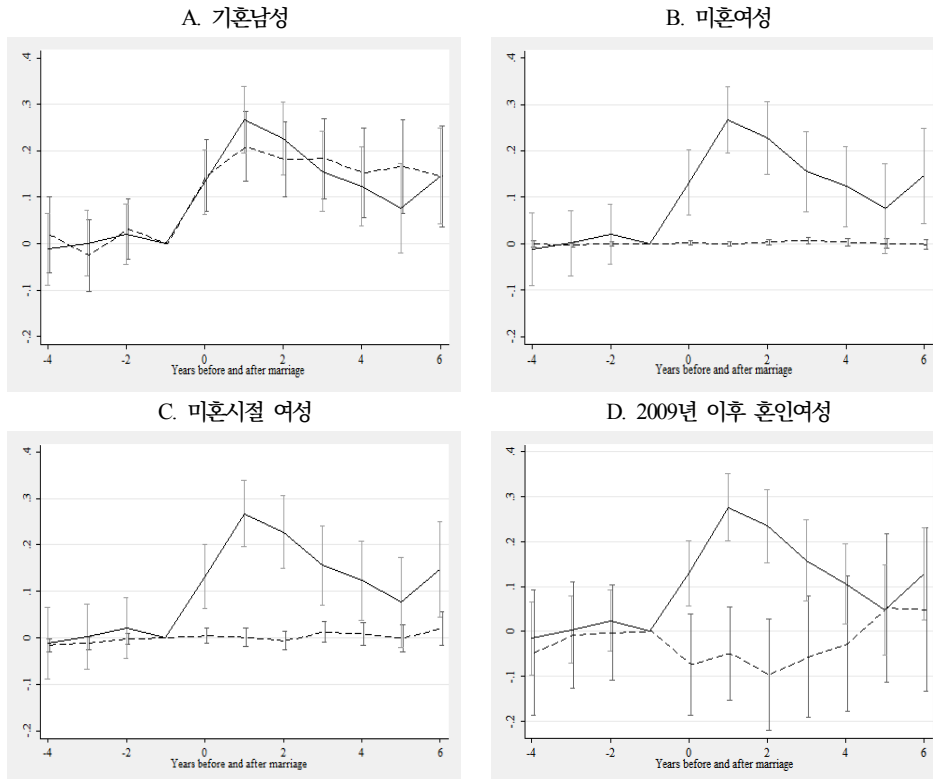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임금 근로자 여부이다. 기혼여성 추정에는 3,574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관측치는 기혼남성 3,375개, 미혼 여성 3,574개, 미혼시절 여성 3,431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492개이다.

[그림 A7] 결혼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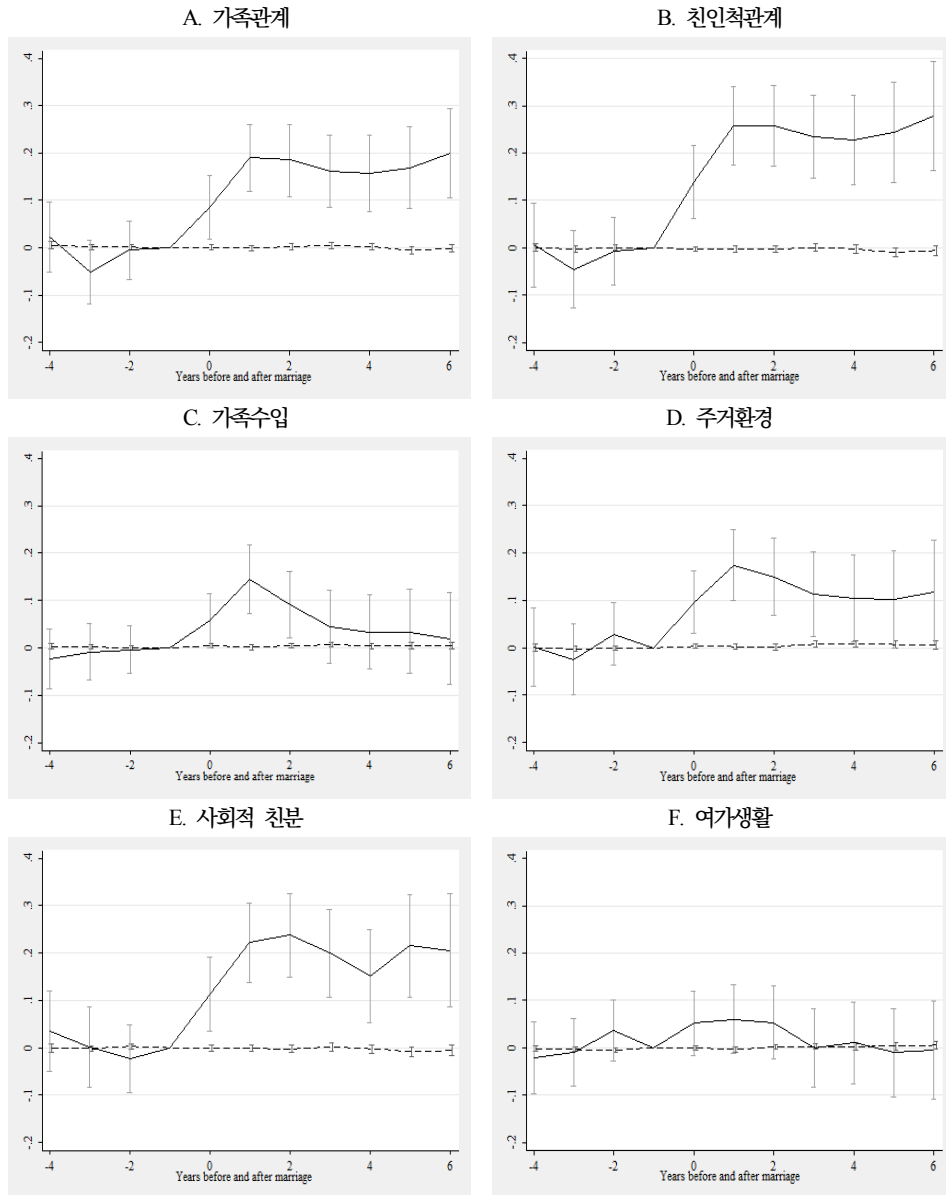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임금근로자가 아니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을 0으로 정의한다. 기혼여성 추정에는 3,536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관측치는 기혼남성 3,343개, 미혼 여성 3,536개, 미혼시절 여성 3,393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473개이다.

[그림 A8] 결혼이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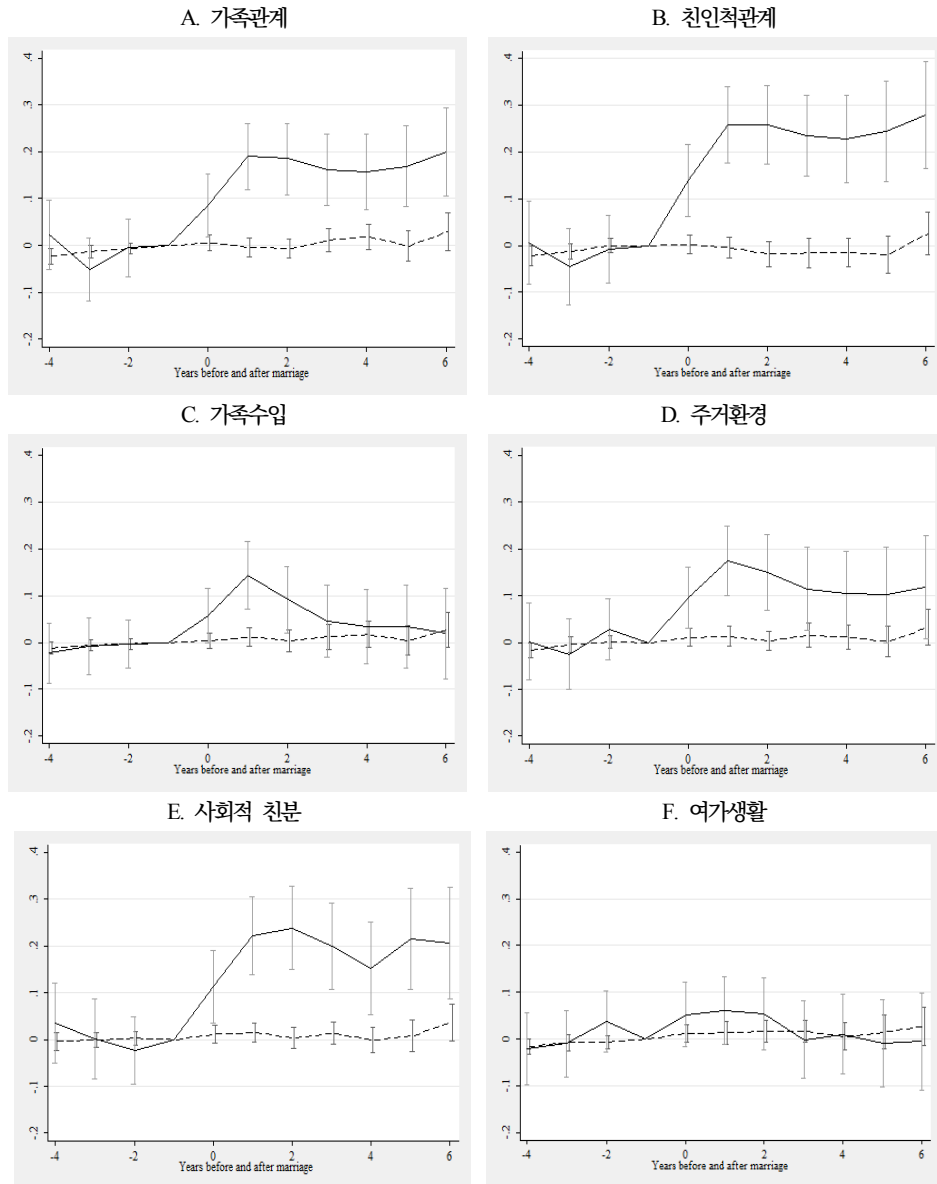
주: [그림 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 '만족 이상' 응답 여부이다. 기혼여성 추정에는 3,517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비교집단의 관측치는 기혼남성 3,320개, 미혼 여성 3,517개, 미혼시절 여성 3,374개,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1,482개이다.

[그림 A9] 미혼여성 비교집단과 비교한 세부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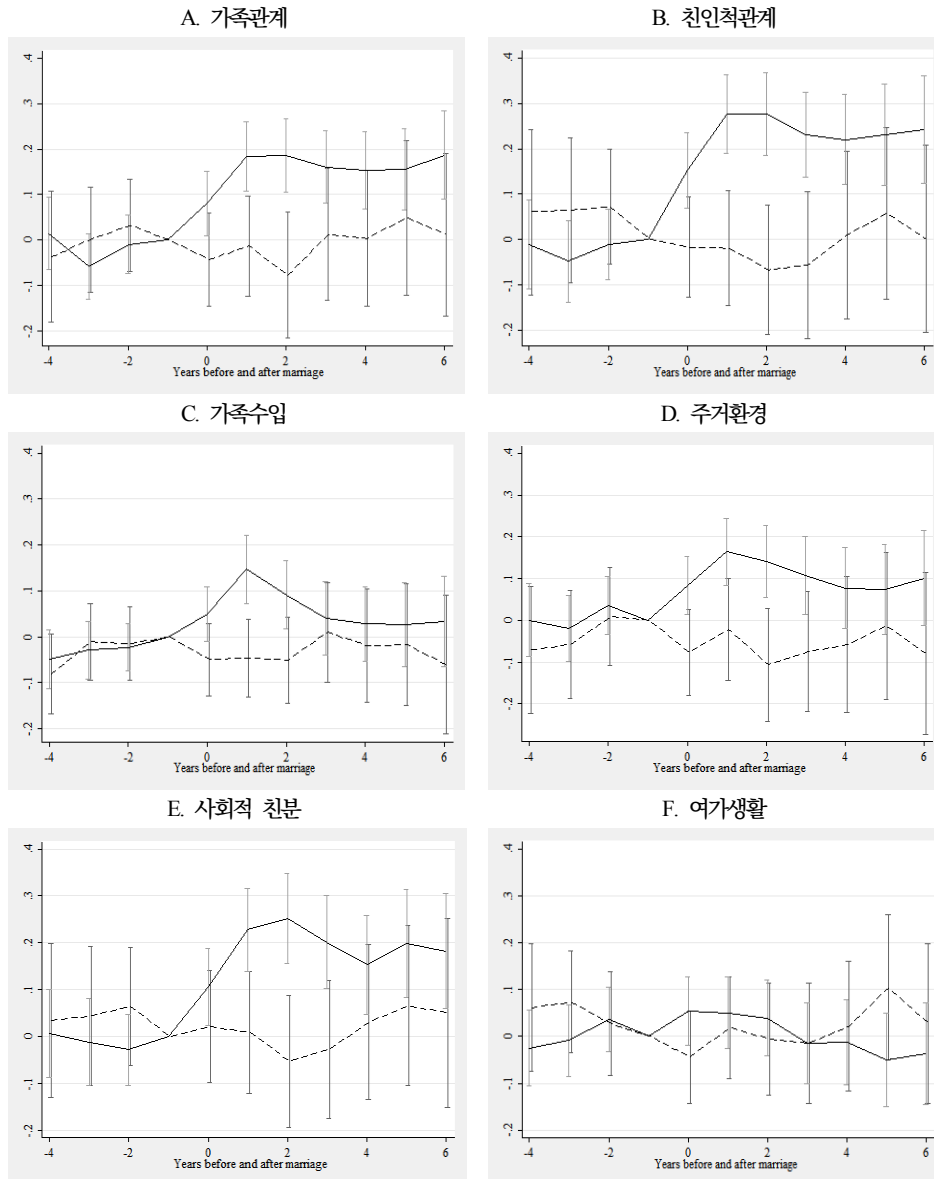
주: [그림 6]의 주석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비교집단은 미혼여성이다.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연령별 ‘만족 이상’ 응답 확률을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분석표본을 기준으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모두 3,517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A10]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과 비교한 세부항목별 만족도



주: [그림 6]의 주석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비교집단은 미혼시절 여성이다. 미혼시절 여성은 기혼여성의 미혼시절 관측치를 의미한다. 미혼시절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연령별 '만족 이상' 응답 확률을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 분석표본을 기준으로 기혼여성은 모두 3,517개, 미혼시절 여성은 3,374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A11]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비교집단과 비교한 세부항목별 만족도



주: [그림 6]의 주석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비교집단은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이다.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은 동일 코호트에서 처치집단보다 7년 후에 결혼한 여성을 의미한다. 가족관계 만족도 분석표본을 기준으로 기혼여성은 총 3,517개, 2009년 이후 혼인여성은 1,617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표 A1〉 처치집단과의 고용률 추세 차이

	(1)	(2)	(3)	(4)
	4개의 비교집단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
- 4기	0.072 (0.0515)	-0.0103 (0.0365)	-0.00324 (0.0367)	0.0049 (0.0794)
- 3기	0.0660* (0.0392)	0.0386 (0.0284)	0.0373 (0.0282)	0.0744 (0.0660)
- 2기	-0.0181 (0.0295)	-0.0043 (0.0226)	-0.00623 (0.0228)	-0.00431 (0.0517)
0기	-0.157*** (0.0336)	-0.129*** (0.0279)	-0.129*** (0.0278)	-0.105** (0.0534)
+ 1기	-0.287*** (0.0385)	-0.250*** (0.0327)	-0.250*** (0.0327)	-0.106* (0.0634)
+ 2기	-0.362*** (0.0450)	-0.359*** (0.0378)	-0.364*** (0.0372)	-0.277*** (0.0766)
+ 3기	-0.426*** (0.0482)	-0.414*** (0.0423)	-0.439*** (0.0410)	-0.388*** (0.0885)
+ 4기	-0.460*** (0.0523)	-0.446*** (0.0462)	-0.460*** (0.0457)	-0.454*** (0.0987)
+ 5기	-0.460*** (0.0576)	-0.456*** (0.0520)	-0.462*** (0.0519)	-0.512*** (0.108)
+ 6기	-0.435*** (0.0646)	-0.432*** (0.0595)	-0.446*** (0.0608)	-0.444*** (0.120)
관측치 수	6,949	7,148	7,005	4,754
R-squared	0.276	0.183	0.266	0.181

주: 위의 표는 기혼여성과 각 비교집단의 상대시점별 고용률 추세 차이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순서대로 기혼남성(1), 미혼여성(2), 미혼시절 여성(3), 2009년 이후 혼인여성(4)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미혼시절 여성은 기혼여성의 미혼시절 관측치를, 2009년 이후 혼인 여성은 동일 코호트에서 처치집단보다 7년 후에 결혼한 여성을 의미한다. 추정식(1)과 달리 처치집단과 각 비교집단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추정치는 상대시점과 처치 여부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이다. 괄호 안에는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으며 표준오차는 개인으로 군집화하여 계산되었다. 처치더미와 나이, 처치더미와 교육수준, 처치더미와 연도의 교차항을 모두 추정식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정식(1)과 같이 집단 간 상이한 연령효과, 교육수준 효과, 연도 효과를 허용하였다.

〈표 A2〉 처치집단과의 근로소득 추세 차이

	(1)	(2)	(3)	(4)
	기혼남성	미혼여성	미혼시절 여성	2009년 이후 혼인여성
	4개의 비교집단			
- 4기	26.03** (12.29)	-10.21 (6.536)	-7.427 (6.450)	-9.213 (12.37)
- 3기	18.93** (9.352)	-0.471 (5.139)	0.709 (5.088)	4.831 (10.64)
- 2기	-0.538 (7.790)	-6.273 (4.390)	-4.762 (4.352)	-9.483 (8.456)
0기	-34.89*** (8.591)	-18.39*** (5.402)	-17.70*** (5.381)	-12.75 (9.599)
+ 1기	-69.68*** (11.71)	-37.66*** (7.069)	-34.99*** (7.067)	-20.77* (12.59)
+ 2기	-93.38*** (14.63)	-54.61*** (9.031)	-51.61*** (9.080)	-38.62** (16.15)
+ 3기	-120.0*** (17.62)	-65.27*** (9.728)	-63.39*** (9.619)	-58.58*** (18.77)
+ 4기	-138.9*** (20.90)	-70.33*** (11.44)	-67.19*** (11.35)	-70.76*** (22.03)
+ 5기	-138.5*** (22.04)	-73.38*** (13.07)	-69.16*** (12.92)	-75.62*** (24.42)
+ 6기	-149.4*** (28.06)	-70.68*** (15.48)	-64.29*** (15.51)	-73.51** (28.87)
관측치 수	6,681	6,898	6,761	4,608
R-squared	0.343	0.15	0.225	0.154

주: 위의 표는 기혼여성과 각 비교집단의 상대시점별 근로소득 추세 차이 추정치이다. <표 A1>의 주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표 A3〉 남성 비교집단과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추세 차이

	(1) 전반적 생활	(2) 가족관계	(3) 친인척 관계	(4) 가족수입	(5) 주거환경	(6) 사회적친분	(7) 여가생활
- 4기	-0.0307 (0.0573)	0.0425 (0.0557)	-0.00662 (0.0657)	0.00838 (0.0460)	0.0444 (0.0597)	-0.00175 (0.0638)	-0.0162 (0.0568)
- 3기	0.0271 (0.0530)	-0.0101 (0.0508)	-0.0856 (0.0597)	0.0513 (0.0433)	0.0726 (0.0526)	-0.041 (0.0600)	0.00759 (0.0513)
- 2기	-0.0107 (0.0468)	-0.00894 (0.0439)	-0.0777 (0.0507)	-0.0172 (0.0368)	0.0501 (0.0476)	-0.112** (0.0511)	0.000397 (0.0464)
0기	-0.0154 (0.0529)	-0.05 (0.0473)	0.0238 (0.0546)	0.0252 (0.0427)	0.0233 (0.0509)	-0.00652 (0.0558)	-0.0397 (0.0483)
+ 1기	0.0583 (0.0527)	-0.0131 (0.0484)	0.0188 (0.0579)	0.153*** (0.0484)	0.08 (0.0558)	0.023 (0.0604)	-0.0383 (0.0519)
+ 2기	0.0461 (0.0574)	-0.0431 (0.0513)	0.0161 (0.0605)	0.0731 (0.0487)	0.0489 (0.0571)	0.0364 (0.0633)	-0.0095 (0.0550)
+ 3기	-0.0284 (0.0618)	-0.0496 (0.0539)	0.0154 (0.0643)	0.00548 (0.0547)	0.0178 (0.0640)	0.00829 (0.0675)	-0.0687 (0.0590)
+ 4기	-0.03 (0.0653)	-0.0661 (0.0574)	0.0514 (0.0692)	0.0451 (0.0578)	0.0257 (0.0684)	-0.0056 (0.0718)	-0.0405 (0.0629)
+ 5기	-0.0899 (0.0707)	-0.0874 (0.0616)	0.00694 (0.0773)	0.0344 (0.0638)	0.00101 (0.0732)	-0.00999 (0.0797)	-0.0451 (0.0678)
+ 6기	0.0013 (0.0763)	-0.00572 (0.0670)	0.0931 (0.0839)	0.0294 (0.0717)	0.0742 (0.0801)	0.0389 (0.0857)	-0.0403 (0.0744)
관측치 수	6,837	6,848	6,020	6,838	6,847	6,020	6,847
R-squared	0.106	0.067	0.079	0.054	0.065	0.072	0.043

주: 위의 표는 전반적 만족도와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상대시점별 추세 차이를 기혼여성과 기혼남성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표 A1>의 주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표 A4〉 미혼여성 비교집단과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추세 차이

	(1) 전반적 생활	(2) 가족관계	(3) 친인척 관계	(4) 가족수입	(5) 주거환경	(6) 사회적친분	(7) 여가생활
- 4기	-0.0136 (0.0389)	0.0205 (0.0375)	0.00145 (0.0447)	-0.0276 (0.0319)	-0.00141 (0.0413)	0.0324 (0.0431)	-0.0202 (0.0380)
- 3기	0.00242 (0.0358)	-0.0511 (0.0342)	-0.0451 (0.0420)	-0.0109 (0.0307)	-0.0238 (0.0377)	0.00107 (0.0435)	-0.00689 (0.0362)
- 2기	0.0205 (0.0332)	-0.00514 (0.0317)	-0.00998 (0.0369)	-0.0041 (0.0259)	0.0285 (0.0335)	-0.028 (0.0367)	0.0411 (0.0330)
0기	0.129*** (0.0355)	0.0852** (0.0338)	0.140*** (0.0396)	0.0517* (0.0298)	0.0914*** (0.0337)	0.113*** (0.0395)	0.052 (0.0347)
+ 1기	0.267*** (0.0367)	0.192*** (0.0357)	0.260*** (0.0419)	0.142*** (0.0370)	0.171*** (0.0384)	0.222*** (0.0422)	0.0641* (0.0367)
+ 2기	0.223*** (0.0399)	0.184*** (0.0386)	0.259*** (0.0429)	0.0858** (0.0358)	0.147*** (0.0413)	0.239*** (0.0452)	0.0503 (0.0388)
+ 3기	0.147*** (0.0439)	0.158*** (0.0387)	0.233*** (0.0444)	0.038 (0.0392)	0.104** (0.0449)	0.196*** (0.0473)	-0.00379 (0.0420)
+ 4기	0.119*** (0.0437)	0.156*** (0.0413)	0.228*** (0.0484)	0.0284 (0.0401)	0.0942** (0.0466)	0.153*** (0.0506)	0.00713 (0.0438)
+ 5기	0.075 (0.0492)	0.175*** (0.0435)	0.253*** (0.0541)	0.0281 (0.0450)	0.0938* (0.0517)	0.223*** (0.0555)	-0.0137 (0.0472)
+ 6기	0.147*** (0.0526)	0.202*** (0.0479)	0.283*** (0.0588)	0.0142 (0.0495)	0.110** (0.0557)	0.211*** (0.0606)	-0.0112 (0.0526)
관측치 수	7,034	7,034	5,958	7,014	7,032	5,958	7,032
R-squared	0.183	0.124	0.155	0.091	0.122	0.132	0.079

주: 위의 표는 전반적 만족도와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상대시점별 추세 차이를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표 A1>의 주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표 A5〉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과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추세 차이

	(1)	(2)	(3)	(4)	(5)	(6)	(7)
	전반적 생활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가족수입	주거환경	사회적친분	여가생활
- 4기	0.00452 (0.0386)	0.0455 (0.0370)	0.0277 (0.0437)	-0.0114 (0.0316)	0.0204 (0.0410)	0.0408 (0.0431)	-0.00328 (0.0378)
- 3기	0.013 (0.0354)	-0.0378 (0.0339)	-0.0335 (0.0412)	-0.00264 (0.0303)	-0.0199 (0.0378)	0.00248 (0.0428)	-0.00231 (0.0357)
- 2기	0.0235 (0.0327)	0.00209 (0.0311)	-0.00753 (0.0358)	-0.00139 (0.0258)	0.0283 (0.0329)	-0.0258 (0.0361)	0.0442 (0.0328)
0기	0.127*** (0.0358)	0.0796** (0.0340)	0.137*** (0.0400)	0.0538* (0.0297)	0.0856** (0.0343)	0.102** (0.0398)	0.0397 (0.0355)
+ 1기	0.267*** (0.0366)	0.194*** (0.0353)	0.263*** (0.0408)	0.133*** (0.0368)	0.162*** (0.0385)	0.208*** (0.0426)	0.0479 (0.0366)
+ 2기	0.234*** (0.0405)	0.192*** (0.0389)	0.277*** (0.0443)	0.0869** (0.0368)	0.147*** (0.0422)	0.234*** (0.0457)	0.0375 (0.0406)
+ 3기	0.143*** (0.0440)	0.150*** (0.0399)	0.250*** (0.0451)	0.0326 (0.0415)	0.0985** (0.0464)	0.186*** (0.0485)	-0.0171 (0.0435)
+ 4기	0.115** (0.0445)	0.139*** (0.0430)	0.242*** (0.0487)	0.0168 (0.0426)	0.0926* (0.0478)	0.154*** (0.0514)	0.00532 (0.0452)
+ 5기	0.0773 (0.0515)	0.170*** (0.0462)	0.264*** (0.0558)	0.0297 (0.0479)	0.100* (0.0538)	0.207*** (0.0574)	-0.0246 (0.0500)
+ 6기	0.126** (0.0553)	0.171*** (0.0512)	0.253*** (0.0620)	-0.00807 (0.0526)	0.0852 (0.0582)	0.170*** (0.0629)	-0.0322 (0.0552)
관측치 수	6,891	6,891	5,821	6,871	6,889	5,821	6,889
R-squared	0.223	0.163	0.167	0.167	0.171	0.177	0.129

주: 위의 표는 전반적 만족도와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상대시점별 추세 차이를 기혼여성과 미혼시절 여성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표 A1>의 주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표 A6〉 2009년 이후 혼인여성 비교집단과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추세 차이

	(1) 전반적 생활	(2) 가족관계	(3) 친인척 관계	(4) 가족수입	(5) 주거환경	(6) 사회적친분	(7) 여가생활
- 4기	0.0258 (0.0787)	0.069 (0.0799)	-0.0716 (0.104)	0.0259 (0.0525)	0.0713 (0.0853)	-0.0276 (0.0979)	-0.0814 (0.0776)
- 3기	0.00926 (0.0712)	-0.0531 (0.0712)	-0.114 (0.0947)	-1.99E-02 (0.0530)	0.0385 (0.0761)	-0.0568 (0.0903)	-0.0799 (0.0665)
- 2기	0.0249 (0.0627)	-0.0357 (0.0611)	-0.0834 (0.0742)	-0.0096 (0.0481)	0.027 (0.0688)	-0.0921 (0.0750)	0.0106 (0.0643)
0기	0.203*** (0.0672)	0.127* (0.0655)	0.170** (0.0715)	0.0963* (0.0500)	0.160** (0.0629)	0.0849 (0.0750)	0.1 (0.0615)
+ 1기	0.324*** (0.0648)	0.201*** (0.0694)	0.297*** (0.0784)	0.191*** (0.0578)	0.186** (0.0760)	0.219*** (0.0822)	0.0333 (0.0673)
+ 2기	0.330*** (0.0775)	0.267*** (0.0827)	0.343*** (0.0885)	0.140** (0.0611)	0.247*** (0.0835)	0.305*** (0.0886)	0.0459 (0.0751)
+ 3기	0.213** (0.0860)	0.153* (0.0859)	0.287*** (0.0962)	0.0284 (0.0712)	0.182** (0.0911)	0.229** (0.0922)	0.000678 (0.0817)
+ 4기	0.132 (0.0923)	0.154* (0.0897)	0.211* (0.108)	0.0462 (0.0769)	0.135 (0.0995)	0.122 (0.101)	-0.032 (0.0879)
+ 5기	-0.00604 (0.101)	0.11 (0.101)	0.174 (0.113)	0.0416 (0.0854)	0.0869 (0.109)	0.133 (0.107)	-0.152 (0.0961)
+ 6기	0.0786 (0.110)	0.179* (0.107)	0.241* (0.124)	0.0929 (0.0950)	0.18 (0.120)	0.132 (0.123)	-0.063 (0.108)
관측치 수	4,687	4,686	3,900	4,676	4,684	3,900	4,685
R-squared	0.146	0.092	0.112	0.078	0.095	0.104	0.064

주: 위의 표는 전반적 만족도와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상대시점별 추세 차이를 기혼여성과 2009년 이후 혼인 여성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표 A1>의 주석과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abstract

The Effects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Women

Inkyung Yoo · Jungmin Lee

We estimate the effects of marriag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and subject well-being.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ital status and timing of marriage, we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method which compares the trends of the outcome before and after the event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For robustness, we use four different control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working drops significantly by about 10%p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and the effect becomes as large as 46%p by the 5th year of marriage. Also monthly earnings decrease substantially. We find that marriage increases subjective well-being, while the effect is not persistent.

Keywords: marriage, birth, women, labor market outcome, subjective well-being, dynamic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